



## city of the baang

지난 3월 24일 문예진흥원은 제9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의 참가 작가로 건축가 김광수(이화여자대학교), 송재호(송재호건축사무소), 유석연(hna 온고당) 씨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제9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은 '방의 도시(City of the baang)'를 주제로 기획한다. 이 주제는 전통적 역할을 넘어 문화경험의 촉매 역할을 제시하는 베니스비엔날레의 전체 주제인 '변용(metamorphose)'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한국관 커미셔너 정기용(기용건축사무소, 한국예술종합학교) 씨는 "올해는 예년과 달리 40세 안팎의 젊은 건축가들 위주로 출품 작가를 선정했으며, 건축가의 완성품을 전시하는 기존의 전시방법을 탈피하여 참여 작가들이 공동으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건축 현상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시도 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 출신의 건축학자 커트 포스터가 총 연출을 맡은 제9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은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카스텔로 공원과 아르세날레에서 개최된다. '변용(metamorphose)'이라는 주제를 상징하여 새로운 하이퍼스케일의 프로젝트와 건물들의 환경적 요인, 새롭게 반응하는 재로, 랜드스케이프(landscape)의 변화, 항구도시들의 재발과 같은 변용의 세계적 징후들을 탐색할 것이며 여타들 포즈 프로그램을 명확한 두 개의 다른 환경 속에서 구성될 것이다. 아르세날레의 연속된 공간에서 최근의 역량 있는 건축가들이 제시하는 경향들과 1970년대 이후 세계 건축계의 풍경을 새롭게 배열한 사건들로 꾸며질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 탈리아관 주변에 붙어있는 공간에서 일리는 설치 작업들로 최근의 건축을 새롭게 변환시킨 특별한 순간들을 보여줄 것이다.

문의: 문예진흥원 02-760-4573 [www.kcaf.or.kr](http://www.kcaf.or.kr)